

NEWS LETTER

CUFS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ontents



- 1 Teaching Tips
> 디지털 웰빙과 학습 환경 설계
- 2 Learning Tips
> 디지털 멀티태스킹 극복하기
- 3 INTERVIEW
-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캐릭터 '싸부'의 탄생
-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 수강 관련 FAQ
- 6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업보고 및 알림





Teaching Tips

> 디지털 웰빙과 학습 환경 설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수진 모두 디지털 피로와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웰빙을 고려한 학습 환경 설계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와 교수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디지털 웰빙을 중심으로 한 학습 환경 설계 전략입니다.

1.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학습 콘텐츠 설계

- 학습 시간 관리: 학습자의 하루 스크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 활동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세요. 학습량을 조정하거나 집중 학습 시간을 설계하여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 짧고 명확한 콘텐츠 제공: 마이크로러닝 원칙을 활용해 간결하고 핵심적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학습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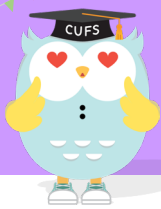
-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균형: 실시간 세션과 비실시간 콘텐츠를 혼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세요. 이는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 대체 학습 경로 제공: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녹화 강의, 텍스트 자료, 대체 과제 등을 제공해 학습 기회를 보장합니다.

3.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도구 활용

- 게임화 요소 도입: 퀴즈, 배지 시스템, 점수판 등을 활용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세요. 이러한 요소는 몰입감을 높이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 상호작용 강화 도구 활용: Kahoot, Mentimeter, Padlet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세요. 이 도구들은 학습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디지털 웰빙을 위한 활동 통합

- 학습 시간 관리: 학습자의 하루 스크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 활동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세요. 학습량을 조정하거나 집중 학습 시간을 설계하여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 짧고 명확한 콘텐츠 제공: 마이크로러닝 원칙을 활용해 간결하고 핵심적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Tips

> 디지털 웰빙과 학습 환경 설계

5.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

- 학습자 간 협력 촉진: 협력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로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는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상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세요.

디지털 웰빙을 고려한 학습 환경 설계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교수진과 학습자가 모두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Digital Minimalism: Choosing a Focused Life in a Noisy World" by Cal Newport
- "Gamification in Learning and Education: Enjoy Learning Like Never Before" by Sangkyun Kim and Jiyoung Song (2019)
- "Cognitive Load Theory: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by John Sweller (2019)
- "The Impact of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s on Student Wellbeing" by J. C. Williamson et al. (2021)



Learning Tips

> 디지털 멀티태스킹 극복하기

현대의 학습 환경에서는 여러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학습 효율성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학습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1. 우선순위 설정 및 집중력 강화

- 우선순위 정하기: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세요. To-Do 리스트를 작성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 포모도로 기법 활용: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동안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여 한 가지 작업에 몰입하세요.

2. 디지털 환경 정리

- 알림 끄기: 학습 시간에는 불필요한 앱의 알림을 비활성화해 방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 학습 전용 기기 사용: 학습에 필요한 앱만 설치된 기기나 계정을 활용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을 최소화하세요.

3. 학습 습관 개선

- 한 번에 한 가지 작업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계획적인 디지털 휴식: 학습 중 짧은 휴식 시간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뇌가 재충전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자기 통제력 강화

- 디지털 사용 시간 관리: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예: Forest, StayFocusd)을 사용해 디지털 사용을 관리하세요.
- 보상 시스템 설정: 작업 완료 시 작은 보상을 설정해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를 유지합니다.



Learning Tips

> 디지털 멀티태스킹 극복하기

5. 학습 환경 최적화

-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학습 공간을 조성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세요.
- 음악 및 백색소음 활용: 집중에 도움이 되는 음악(예: 클래식, 백색소음)을 활용해 외부 소음을 차단합니다.

디지털 멀티태스킹을 줄이면 학습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참고문헌>

- "Digital Minimalism: Choosing a Focused Life in a Noisy World" by Cal Newport
- "Gamification in Learning and Education: Enjoy Learning Like Never Before" by Sangkyun Kim and Jiyoung Song (2019)
- "Cognitive Load Theory: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by John Sweller (2019)
- "The Impact of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s on Student Wellbeing" by J. C. Williamson et al. (2021)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진정란 교수 (초급 한국어)



<1> 현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까지 강의해 오신 과목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어학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부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교육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 화법의 이해, 한국어 언어 문화의 이해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에서는 초급 한국어 그리고 요리하며 배우는 한국어 과목을 담당해 왔습니다.

<2> 이제까지 담당해 왔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강의 개발 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공통적일 텐데요. 교과목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교육해야 하므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는 내용들을 제공해야 하고요. 또 다양한 현장의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양에 관한 내용들을 수업에서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전공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언어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제와 평가 방법을 고민하면서 차별화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진정란 교수 (초급 한국어)



<3>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사이버대 교수님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일 텐데요. 일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눈앞에 보고 그 시선을 통해서라도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교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대면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도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그런데 온라인 대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하므로 처음 강의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난이도나 전달 방법을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활동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고안에 고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학습하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인풋 중심의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생산을 해내는 학생들의 아웃풋을 위한 훈련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파악해야 해서 학기 초가 되면 교수님들과 함께, 특히 입학 시즌에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지 판단하고요. 또 어떤 배경지식을 가졌는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난이도를 책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생업과 겸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제를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혼자 하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 또는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도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하우도 교수님들과 공유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서 제 방법을 교정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보다 경험이 많이 적은 젊은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오히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 내에 오프 수업이나 아니면 방문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수업에 대해서, 교과목에 대해서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부의 활동에도 보고해서 활동들을 기획하고 학생들과 더 소통 잘하는 학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진정란 교수 [초급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행했던 그런 교육 방법을 반성적으로 한번 보면서 무언가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신청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같은 지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교수설계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평가 결과를 받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강의평가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수 강의로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뭐가 차이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버대 교수들을 강의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는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시간에 쫓기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구년을 지내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운이 좋게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언젠가 좋은 강의평가로 '내가 이런 점수를?' 이런 경험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하루하루 교육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진정란 교수 [초급 한국어]



또 하나는 이번 강의평가가 높았던 핵심이 되는 과목이 한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나는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유독 강의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제가 좀 더 학습자들이 하기에 수월한, 여기서 수월하다는 것은 방식에 있어서인데요. 만족도는 더 높아지면서 하기는 수월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똑같은 과목에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학생을 일대일 줌으로 만나 말하기 시험을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두 달 걸려서 야간 시간을 할애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노력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그 짧은 시간 소통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법을 바꿔서 2주에 한 번씩 복습할 수 있는 쓰기 과제를 주고, 그 쓰기 과제를 아주 열심히 피드백해 줬습니다. 형식 피드백 뿐만 아니라 내용 피드백까지 튜터 선생님하고 저와 열심히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생각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과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사이버대 학생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이것도 좋지만 학습자들의 상황, 처지,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역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파트너가 저는 학습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을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친해지려고 또 그들을 잘 알아가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사이버대 교수에게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양은심에블린 교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1> 현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까지 강의해 오신 과목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학부의 양은심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말고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통번역 그리고 플렉스 인도네시아어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종학당에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통번역 교재 개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전문 통번역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총 네 과목입니다.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연습,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작문, 인도네시아어 통번역 입문,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작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그리고 통번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실은 말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따라 말하기 그리고 작문해서 말하는 것 등으로 난이도를 여러 단계로 조절하여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연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퀴즈 그리고 과제가 있는데요.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하시고 충분히 이게 비록 사이버상의 강의지만 말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2> 이제까지 담당해 왔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담당하는 과목들은 인도네시아어를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제 과목에서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연습들을 좀 강조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 과목에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대다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특히 이 난이도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중, 고급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양은심에블린 교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3> 강의를 개발할 때 혹은 운영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과목에 따른 교수님만의 강의 및 강의실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 개발을 준비했을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의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자도 혼자 외로이 촬영하고, 학습자들도 혼자 외로이 공부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강의를 진행할 때 흥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콘텐츠, 퀴즈, 그리고 여러 다양한 텍스트도 여러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즐겁게 수업을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본 것 같습니다.

또 운영하면서 저는 다른 교수님들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개발한 문이 게시판이나 아니면 열린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실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학생들로부터 지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일방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이 게시판이나 열린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이 높았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과 대면했을 때 받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그 외에 오프라인상에서도 강의 경험이 있었고 또 통·번역사로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나 아니면 대면 수업을 했을 때 받은 그런 자료들을 기억하여서 실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를 배우시면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팁으로 넣어서 이런 실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튜터의 도움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학기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중간고사 하나, 기말고사 기간에 정말 공지 사항이 많아서 튜터의 도움 없이는 정말 정말 버거울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저를 도와주었던 여러 튜터는 굉장히 신속하게 응대해서 저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양은심에블린 교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그리고 또 이제 전달할 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자가 특히 과제가 있을 때 이 과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전달 사항들이 있는데요. 튜터와 좋은 협력을 맺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수강생분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문의 게시판이나 열린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면 수업 외의 내용들을 더 많이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의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촬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나 아니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었고,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들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좀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모든 교수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을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도 잘 알고 매 학기마다 특강 식으로 학생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강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제가 물론 준비한 수업 외에 다른 내용들을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 만남으로 '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이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특강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양은심에블린 교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5>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이 사이버강의를 준비할 때가 기억났습니다. 정말 많은 영상들을 참고해 보고, 또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샘플로 보여주었던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막상 제 것을 준비했을 때 정말 난이도 조절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조절이나, 또 피피티는 얼마나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들 많이 참고하도록 노력하였고, 또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의 그런 조언들도 많이 참고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개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있었다라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 그리고 팁들은 아마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중복되고 유사점이 많은 만큼 필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지켜주시면 정말 좋은 강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알리샤 튜터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학부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연습>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양은심에블린 교수님께서 학우분들의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한 과목입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3학기 동안 저는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연습>,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강독>,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작문>, <인도네시아어 통번역 입문>, <인도네시아어 입문>, <중급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문법 II>, <인도네시아 역사>, <인도네시아지역 사회문화의 이해> 다양한 과목에서 튜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2.2> 담당해 왔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튜터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튜터로서의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문의 게시판을 통해 언어 과목에서는 원어민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미세한 표현 차이, 유행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알려주며 학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화나 역사 과목에서는 학우분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적 맥락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퀴즈나 과제가 많은 과목의 경우, 학우분들이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리마인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독려하며 학업 관리를 도왔습니다.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정과 과제 마감 기한은 과목 공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개별적으로는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해 학우분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독려 메시지는 과목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조정하며,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 소통 누락을 방지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처럼, 문자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로 대체해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알리샤 튜터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우분들이 학업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학우분들이 사이버대학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사이버대학교의 모든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우분들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히 응대하며, 소통이 원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우분들이 제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우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튜터로서 학우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들과 협력하여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튜터로 활동하면서 학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유정은 튜터 (초급 한국어)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한국어학부는 한국어교육전공과 한국어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전공 과목으로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한국어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전공 과목으로는 실전비즈니스 읽기쓰기, 초급 한국어,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2021년 2학기부터 한국어교육전공 과목인 한국 대표 문학작품 감상,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교육론, 외국어습득론, 동남아시아권 한국어교육론, 일본어권 한국어교육론,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와 타문화 이해, 대조언어학 과목의 튜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전공 과목인 한국사회의 이해, 초급 한국어, 초급 한국어2, 실용 한자어, 실전비즈니스 읽기쓰기,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의 튜터를 했습니다.

<2.2> 담당해 왔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튜터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어교육전공 과목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한국어전공 과목은 외국인이나 귀화자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 때문에 전공별로 튜터가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전공 과목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현장 경험이 많거나 전혀 없는 수강생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공지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과 내용에서는 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의 지침에 따라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어전공 과목은 외국인이나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므로 공지사항을 작성하거나 문자와 메일 등으로 전달할 때 과목별 수강생의 수준에 맞춘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교과 내용에서는 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의 첨삭을 하는 등의 보조 역할을 하였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유정은 튜터 (초급 한국어)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기 초에 학교와 학부에서 주시는 튜터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주차별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수업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의 지침을 따르는 것과 시험 시에는 학교에서 내려주는 운영 방침과 한국어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메시지로 질문하는 학생들의 문의에 가능한 빨리 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교수님의 지침을 따르는 것과 과목 게시판의 질문의 답변이나 시험 출제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교수님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출석과 과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메일, LMS 메시지,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LMS의 질문 게시판이나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한 학생들 중 일부는 답변을 늦게 준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기 초 공지사항을 통해 교수님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 실시간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점을 미리 알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pc로 로그인을 하였으며, 휴대폰에 'LearningX teacher'를 깔아 올라오는 질문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동시형 시험의 경우, 공지한 내용에 있는 부분임에도 시험 시간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 이후에는 29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빨간색으로 강조하여 공지를 하였습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수님을 보좌하며 학기 내내 학생들과 소통해야 하는 동료 튜터님들께 '토닥토닥'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튜터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튜터님들께서 앞서 써 주신 글들을 먼저 읽고 시작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신은택 튜터 [산업안전보건법규]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5개 과목[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재료 및 시공학, 공동주택시설개론2, 소방관계법규, 주택관리관계법규2]에 대하여 튜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수업을 위주로 튜터를 담당하였습니다.

건설공사안전론, 건설재료 및 시공학, 공동주택시설개론1, 공동주택시설개론2,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관계법규, 인간공학개론,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관리관계법규2, 산업안전보건법규 과목입니다.

<2.2> 담당해 왔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튜터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튜터의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였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튜터 업무(질의 답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과목 그리고 학부 특성에 따라 수강자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대응이 편합니다.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의 과목 수강자들은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로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과제, 시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적응 어려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 드리는게 중요합니다.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위의 답변과 비슷한데, 서면 답변보다는 주로 연락을 따로 받아서 유선 전화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재문의 등 번거로운 상황이 많이 생기므로 직접 연락드려서 대화하는 것이 소통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있으신 수강자 분에게 좋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튜터평가 우수 신은택 튜터 [산업안전보건법규]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시스템적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앱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시 지속적인 인증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인증받은 기기 등록 등을 통해 튜터 업무 환경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많은 튜터분들이 업무를 단순한 상담이나 관리로 한정 짓기 쉽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교수님들과 수강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험은 평생에 몇 번 밖에 찾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예기치 않은 지혜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만남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시우 학생)

더할 나위 없이 현명했던 아홉수 나기 프로젝트

본래 처음 다녔던 학부에서 사회과학 방면을 전공했던 나는 반쯤은 취미 삼아 중국어를 익혀왔지만 졸업하고 나서 돌아켜보니 이왕이면 인류의 오랜 유산인 언어를 주전공으로써 심도 있게 파 볼걸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편을 늘 맴돌았다. 그렇게 중국어 고전 읽기에 은은하게 붓을 담그고 지내온지 보니 인터넷 사전을 끼고 살다시피 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느닷없게도 스페인어과를 홍보하는 배너가 뜨곤 했다. 그것이 스페인어와 나의 아주 오래간만의 조우였다.

스페인어가 모국어 사용자 수로는 세계에서 무려 1서열 넘버 two!로 많이 사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게 있어선 대학교때 교양으로 수강했던 외국어임은 분명한데 어찌 이리 까마득히 잊혔을까? 싶을 만치 아스라이 뇌리 속에 사라진 유물과도 같은 존재감에 불과했다. 푸릇푸릇하던 스무 살 언저리에 열심히 듣는다고는 하였는데 그때는 현장 강의만 있던 시절이라 디테일한 문법의 요소요소들이 귀에서 획 지나가 버리면 세세하게 포착하여 수강하기가 참으로 조악한 시절이었다. 유튜브가 태동하기도 한참 전이었고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여서 국내에서 더욱이 콘텐츠가 미비하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

강산일변의 시간이 지나 불혹의 사춘기가 접신하려던 찰나 알고리즘신이 먼저 보우하사, 다시금 등장해준 그 배너에 호기심이 생겨 학부 홈페이지까지 찾아갔고 김수진 학부장님의 따스한 언사가 돋보이는 학과 소개 영상을 보고는 한 눈에 매료되어 사이버한국외대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고 입학전형도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나이에 독학이나 하면 땀지 무슨 학교씩이나 다닐까? 편입으로 들어가는 거라 해도 2년 가까이 되는, 혹은 그 이상의 짧지 않은 여정(어쩌면 고행)이 될텐데...” 와 같은 생각이 겹치며 두 번째 학부를 또 다녀볼까 하는 마음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 시국이 장장 2년 반 이상으로 흘러갔고 이후에도 가끔씩 사외대 홈페이지를 마실 나가듯 구경가고는 했지만 정작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품게 되질 않았다. 단순히 사교육 업체를 통해 체험하듯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내 입맛대로 슬슬 조절해 듣는 강의와 ‘정식으로 학위를 따는 과정’ 이주는 일종의 체계성과 압박감의 차이는 엄연하리라 예상했기에 입학할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족히 3~4년은 했을 것이다.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몇 달 앞두고 가슴속에 있던 돌덩이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치워준 것처럼 마음에 신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2023년도 봄학기에 드디어 3학년 신입생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우수 학생)

스페인어학부에 들어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확이 있다면 지난 2학기에 소화한 김수진 학부장님의 수업과 박소영 교수님의 과제를 통해 외국어 학습에 접목시킨 AI 활용법과 양상에 대해 제대로 체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한국의 관광자원을 스페인어로 소개하는 과목인 《시와 관광안내 스페인어》는 대부분 졸업 학기에 듣게 되실텐데 그 수업 자체로 하나의 작품같다는 감상이 든다. 유려한 문장이 가득 찬 강의 교안과 정성이 묻어나는 치밀한 구성, 빼어난 영상미에 매번 탄복하면서 수업을 들었다. 드론까지 날려 손수 영상을 제작하신 콘텐츠개발팀의 열정에 반하고 새로운 하이테크를 어문학 수업에 적용해 시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찰을 키워주신 김수진 교수님께 새삼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아래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몇 개의 팁을 전수하고자 한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현시점에서 초행길 나그네들의 고산지대 등반을 돕는 셰르파의 심정으로 사이버대학이라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두루 나누고 싶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엉뚱하게 득도한 비결이라 감히 '독자적'이란 타이틀을 달았으니 가벼이 새겨들으셔도 괜찮다.

<현실감 챙기기>

학교가 멀어 사외대 건물까지 자주 와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이 어려운 학우분들이 오롯이 인터넷상으로만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몇 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있는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불현듯 찾아온다. 그럴 때는 LMS 앱의 메시지함에 들어가 새 메시지를 열고 '과목'을 선택해 '수신자'를 누르면 그 과목을 듣는 총 학생수가 뜬다. 특히나 시험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갈 길은 먼데 꾸벅꾸벅 졸릴 때 그 많은 경쟁자들의 인원수를 보면 학생 여러분 눈 밑의 다크서클이 얼마나 짙게 내려왔는지 간에 잠이 번쩍 깰 것이라 장담한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시우 학생)

<주변 환경 통제는 필수>

실제로 몸소 겪은 아찔한 경험담이다. 전공 과목의 기말고사를 목전에 두고 3,2,1 카운트다운을 센 뒤 시험에 입장한 바로 그 순간, 세탁소 아주머니가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야 말았다. 평소에는 고장이 나 작동이 됐다 안됐다 오락가락하던 우리집 초인종이 그날은 어찌나 찌렁찌렁 울리던지... 눈물이 왈칵 날 뻔했다.(심지어 내가 맡긴 세탁물도 아니었다!) 급한 마음에 그냥 바닥이든 어디든 대충 놓고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웬 작정이나 한 듯 초인종을 2분 내내 누르는 데 대문 앞까지 후닥닥 날아가 상황을 수습하고 자리에 도로 뛰어와 앉자니 촌각을 다투는 종대사의 한복판에서 인간극장을 찍는 기분이었다. 정말 화가 나고 놀라고 속상했지만 나는 지금 액션 스릴러 무비의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까스로 흠어진 주의력과 평정심을 주워 담아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부디 세탁소/택배/각종 등기우편이나 가족의 배달음식 수령/빌런에 맞먹는 불청객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택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문 앞에 커다랗게 초인종 금지의 표식을 써 붙이시길 바란다.

<주전부리를 쟁여두자!>

아무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는 직장생활이나 가사노동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리라 본다. 온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듯, 때로는 새벽녘까지 들을 때에는 프로틴 베이스의 간식거리 (셰이크/두유/시리얼 포함)와 바삭바삭한 감자칩류, 데워먹을 피자, 컵라면, 우울함 방지용 초콜릿 디저트가 보조를 해줘야지만 잠들지 않고 매 주의 수업 분량을 무탈히 이행할 수 있다. 믿기지 않는다면 졸졸 배고픈 상태에서 밤샘이 얼마나 고문에 가까운 일인지 몇 번만 경험해보시라... 높은 학업성취도와 맞바꾼 뱃살은 졸업 즈음해서 빼도 된다. 나도 지금 뱃살을 미리 뺏겨 써버렸다ㅋㅋ

<뚝뚝한 단축키>

웹으로 접속 시 LMS상의 각 과목으로 들어가 강의콘텐츠 영상을 재생시킬 때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다. 스페이스바: 재생 및 정지 / 알파벳 F: 전체화면 (한 번 더 누르면 전체화면 나가기) / 알파벳M: 음소거 / 알파벳 C: 빠른배속 / 알파벳 Z: 정상배속 / 알파벳 X: 느린배속 / 자막을 끄거나 켜기가 되는 단축키는 없는 것으로 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시우 학생)

<강의노트 준비는 쏘살같이>

학사공지에 강의노트 구입 가능 일자가 뜨는 즉시 그 일자를 확인하고 유념해 구입가능일 바로 첫날에 주문을 넣기를 추천한다. 학기 초에는 주문량도 워낙 많고 또 잠깐 깜빡하여 2~3일이라도 지체되면 개강 첫 주 끄트머리 혹은 둘째주나 되어서야 교재를 받아보는 수가 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학기당 최소 여섯 과목 정도 듣는다 쳤을 때 한 과목이라도 진도가 며칠씩 늘어지거나 아니면 필기를 다른 데 했다가 다시 부분부분 들으며 강의노트에 채워넣는 것은 매우 큰 에너지 소모이다. 필기도구(수정테이프 포함)+강의록+몰입 청취를 위한 이어폰을 기본 준비물로 세팅한다.

<강의노트 안 팔아요>

혹여 강의록 합본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셀프로 출력해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색 A4용지(형광 화이트보다 눈의 피로도가 덜하고 종이도 덜 뻣뻣하다), 양면 인쇄 옵션을 권하는 바이다. 개강 직전엔 주말이 끼이기 때문에 늦어도 개강 바로 전 주 평일에는 의뢰에 들어가야만 한다. 인쇄소마다 종이의 단가나 사장님의 작업 스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향후 2~4년 자신과 궁합이 맞는 집 근처의 인쇄소를 짚하여 작업을 맡기면 편하다. 또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전체 강의록의 페이지수가 3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간다면 하거나 하면 본드 제본이 아니라 스프링 제본으로 두 권을 만들기를(1~7주차 / 9~14주차로 나눠서) 강력 추천한다. 볼륨이 두껍고 무거워지면 필기하거나 시험공부할 때 넘겨보거나 휴대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시우 학생)

<학교 공지사항을 인터넷창의 시작화면 or 북마크바 or 바탕화면 바로가기에 걸어두기>

이렇게까지 해놓지 않으면 중요한 공지 내용을 자칫하여 흘랑 흘려버리는 수가 있다. 나의 경우는 학교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거주하는데 어느 포근한 봄날 중앙도서관에 대출을 하러 (책들을 들고 올) 포대기까지 바리바리 준비해 캠퍼스에 짜잔~하고 나타났더니 하필 개교기념일일 줄이야!! 참고로 우리 학교의 개교기념일은 4월 20일이며, 이 날은 도서관의 대출 업무가 중단된다. 학사공지에는 학사 관리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올라오고, 일반공지에는 개교기념일 안내와 더불어 공모전과 번역 콘테스트 등의 쓸쓸한 정보가 올라오니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각자 다이어리나 스케줄 앱 등에 기록해두길 바란다.

* 대학생활 ⇨ 공지 ⇨ 학사공지/일반공지

<늦잠 말고 토요 특강!!>

우리 학교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라 하면 바로 토요일의 오프라인 특강과 zoom을 통한 화상 강의이다. 물론 기우이긴 할 테지만 한창 학기 중반부를 향해 치달을 때면 뻑뻑한 강의 진도와 골치 아픈 과제에 신경쓰느라 특강 공지는 거짓말처럼 까먹게 된다. 네이버밴드의 알림을 부디 끄지 말고 수시로 자신들이 속한 학과의 동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경험에서 우러나와 하는 말이다.

* 대학생활 ⇨ 비교과프로그램 ⇨ 특강공지

* 각 학부 게시판의 새 글 튼튼이 확인

* 바쁜 와중이어도 네이버 밴드 주중에 한 번쯤은 들여다보기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시우 학생)

<오늘의 질문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교수님이나 튜터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문의게시판에 새 글을 하나 띄워둔 채로 수업을 들으며 바로바로 작성을 해놓길 바란다. 수업 다 듣고 나서 물어보아야지 하며 따로 적당히 표시해둔 것들을 시험을 앞두고 한 번에 물어보려하면 내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이해가 미흡했는지 본인도 헷갈릴 수 있다. 만약 실시간으로 질문을 작성하기가 수업 듣는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의문점이 생기는 해당 부분에 가급적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미니 포스트잇을 붙여도 좋다. 답변도 직접 손으로 간추려 메모화 시키는 편을 권한다. 나중 가서는 너무나 많은 과목과 단어와 과제와 콘텐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 들을 때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험 직전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강의자료실 자료 저장>

우리 학교 수업은 외국어 전공과 수업들이 비중이 크다 보니 각 과목마다 다량의 원어민mp3 파일이 올라온다. 졸업 후에는 따로 복습하거나 강의자료실에 진입이 불가하므로 원어민 음성인 압축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모든 수업의 자료를 빠짐없이 아카이빙 해놓기를 추천한다. 두고두고 추억하며 복습할 수 있는 귀중한 보조 자료집이 될 것이다.

후기를 마치며...

스페인어 전공자로서 지난 학기는 학습 분량과 난도 면에서 다소 혹독한 《시와 관광안내 스페인어》, 《스페인어-한국어 번역연습》, 《해외취업과 비즈니스 스페인어》, 《텍스트 산책과 올바른 글쓰기》, 《초급 스페인어 읽기와 쓰기 II》를 동시에 듣느라 새치가 열 가득은 생겨났다. 내 경우는 편입생이라 동일한 학기 내에 몰아서 수강하면 보다 임팩트 있게 머리에 입력될 것이라 판단해 전공과목을 타이트하게 시간표 안에 넣고 도합 아홉 과목을 한 학기에 진행시켰는데 무사히 완수는 하였지만 상당한 인고의 기간이었다. 전공+비전공+교양을 합쳐 최대 일곱 과목 이하로 수강하는 것이 수업 스케줄 관리에도 그나마 용이하고 건강을 지켜가며 맑은 학업 기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에 최적일 것이라는 나름의 견적을 도출하였다. 외국어 학습은 장기전이라 방학 중에도 군데군데 보수 공사가 필요한 파트를 복습하며 감각이 녹슬지 않도록 각고의 돌봄을 쏟아야 될 금쪽이 같은 자산이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모두 땀 흘려 일군 배움의 과실이 언제라도 탐스럽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수련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2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재환 학생)

외국어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학기에 스페인어학부 3학년으로 편입한 유재환입니다.

스페인어를 처음 접한 계기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영어를 다시 배우기에는 부담이 되어 다른 언어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에 우연히 Mocedades 그룹의 Eres Tú라는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어 교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강의만으로 독학했습니다.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제게는 외국어 학위를 하나쯤 갖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10년 후, 우연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홍보 배너를 보고 체계적인 정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4년 2학기에 스페인어학부에 지원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주변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를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늘 “언젠가 꼭 활용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2학기 편입생으로서 스페인어학부의 모든 커리큘럼을 맞춰 수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두 가지를 이수할 계획이 있어 이번 학기에는 교양 과목만 신청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교양 과목인 스페인어 첫걸음과 스페인 문화와 예술을 포함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교양 과목 5과목까지 총 7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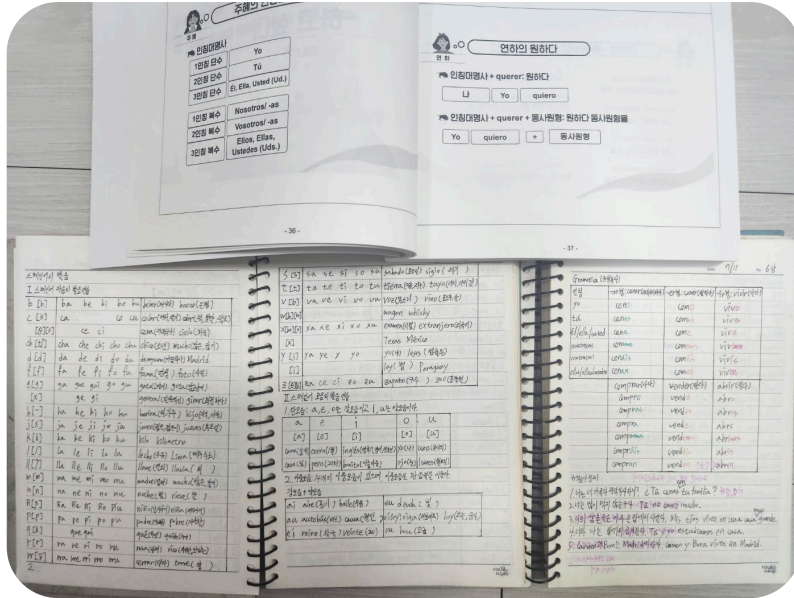
현재 직장을 다니며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하루에 한 과목씩 강의를 듣고 노트를 정리하며 열린 게시판에 질문도 올리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 과목당 기본 2시간, 많게는 3시간 분량의 강의를 듣고, 노트 정리에 1시간씩 투자했습니다.

7과목 중에서도 전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스페인어 첫걸음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남궁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10년 전 독학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교재에 제본하고 노트에 꼼꼼히 정리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2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재환 학생)



강의 별 노트 정리

여기서 스페인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겨울마다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배구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페인, 쿠바, 아르헨티나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 선수들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영어 외에는 모국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쌓아온 10년간의 내공 덕분에 자연스럽게 스페인어권 선수들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 대화할 때, 선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 Hablas español?”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저는 늘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Sí, un poco hablo español.”
[네, 스페인어 조금은 할 줄 압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2등 후기 (스페인어학부 유재환 학생)

스페인어를 조금 한다고 이야기하면 선수들과 그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외국어를 배운 보람을 느끼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스페인 국적의 선수 한 명과는 벌써 6년째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쿠바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선수와 가족들과도 경기장에서 친목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학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에 도전하세요. 언어의 본질은 소통에 있으며, 외국인들은 실수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대화를 이어가고자 노력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스페인어학부의 전공 과정을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이수하며,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스페인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넓히고, 졸업 전까지 DELE A2와 B1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깊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통해 스페인어와 융합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도 학업을 통해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K뷰티학부 신명진 학생)

피부관리사가 되기 전에 배웠어야 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피부관리사로 25년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작년한해동안 일과 수업을 병행하였지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부관리자격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피부관리를 영업선배들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얼굴의 골격이나 근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이 무식하게 만지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피부를 배웠고 오랫동안 영업하면서 세월과 시간을 통해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중간에 피부관리 자격이 생기긴 했지만 자격 검정은 주로 위생에 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화장을 잘 지웠나, 얼마나 제모를 잘 했나를 체크 받습니다. 마사지는 림프 드레나주라는 테크닉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인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먹는 민족입니다. 이런 테크닉으로 영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반영구를 배웠고, 네일도 배웠고, 족부 관련, 팔사 관련, 두피 관련 수없이 많은 단발적인 강좌를 통해 지금의 지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두피, 메이크업, 피부관리 기초, 공중보건학, 뷰티마케팅, 색채학 등 12개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피부관리사가 되기전에 배웠어야 하는 과목들입니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문지르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수하고 영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피부관리사의 영업방식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생각보다 무지합니다. 정말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걸까요? 저는 1년간의 수업들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지식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쓰면서 고객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써왔던 많은 화장품의 배합에 회의가 듭니다. 진짜 비타민C를 올바르게 발라 화이트닝을 해주었을까요? 새로운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고객들의 피부를 변하게 해주었을까요? 말만으로 그럴듯한 마사지를 해댄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객들께는 미안하지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작년만은 제게 칭찬해주고 싶은 한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식한 피부관리실원장이, 궁덕궁덕 대충 문질러 대는 피부관리사가 아닙니다. 25년의 세월의 경력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K뷰티학부 수업이 합쳐져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뷰티학부 신명진 학생)

몇 년 전 다른 사이버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학과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강의는 벽에 돌려놓고 시험과 레포트만으로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점수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사이버대라고하는 것이 그렇지요. 쉬웠습니다.

작년 한해 저는 매일저녁 10시에 영업을 끝난 후 영업장에서 한시간 반씩 수업을 듣고 퇴근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은 딴 생각하다 지나가면 다시 돌려서 들어야 했습니다. 강의를 아까웠기 때문이죠. 덕분에 작년내내 영업장의 전기세가 예년에 비해 3만원씩 더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영업장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수업 듣느라 15년을 가던 동창회도 못갑니다. 친구들과 술도 안마십니다. 요새 저는 오랜만에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도 대학생으로 연결하여 매주 3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라떼를 마시구요. 카카오페이로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의 할인을 받습니다. 물론 편의점 할인도 받구요.

작년 여름엔 중국어학과 문화탐방에 따라도 갔습니다. 지금 저는 30대에 뒤지지 않는 스마트한 중년입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이 학교를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제주변의 사람들이 이 학교에 저를 따라 줄줄이 입학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 큰아들이 영진사이버대학교 뷰티학과를 자퇴하고 저와 같은 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했구요. 올해 큰언니 딸이자 제 조카가 같은 학교에 입학하구요. 제 친한 동생이 또 편입을 합니다. 학교를 오렌다고 오고, 다니렌다고 다녀지겠습니까? 저의 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니 따라오는 거겠지요.

저희는 내후년이면 기본적으로 저 조카가 졸업과 함께 종합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때 함께 지금의 봄날이라는 피부관리실을 토탈관리샵으로 재창업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피부 뿐 아니라 두피와 메이크업이 가능한 토탈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K뷰티학부 신명진 학생)

저희는 청소년과 소방공무원에게 호의적인 사회적기업과 가치소비가 가능한 기업을 이를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힘든 나라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위로하고 후원을 할 생각이며, 모든 사람이 불을 보고 도망갈 때 꺼꾸로 맘을 다잡고 불과 싸우는 소방공무원을 후원할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우선시 될 것입니다. 지금 1학년인 아들이 졸업을 하면 저희는 모두 동문입니다. 그때는 우리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우리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생각합니다. 동문은 소중하니까요.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를 통해 실력 있는 기술자들도 배출할 생각합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왜 뷰티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학교의 선택이야말로 뷰티의 글로벌화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함께 발맞추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흘릭볼날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한국어학부 신채리 학생)

나만의 교수법을 향한 여정,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발자취

이번 학기를 마치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에서 배운 것들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저의 꿈에 큰 발판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현재 저는 태국 방콕에 파견되어 관광/호텔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통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성적의 수치와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제게 유의미한 결과를 남겼고, 후회 없이 공부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 중 가장 유익했던 수업은 한국어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실제 수업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진행 방식을 매우 실감 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으며, 특히 어휘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실생활 혹은 특정 직업적 상황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역할극, 단어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관광/호텔 필수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실천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업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 수업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에 대해 배운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문화 교육은 일상생활 문화부터 언어에 함축된 문화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며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언어 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 한국인의 특징, 사회적 특징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또한,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문화 교육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한국어학부 신채리 학생)

한국언어문화의 이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은 태국 방콕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 "English for F&B Service" 수업에서 한국 음식을 주제로 실습수업을 진행했고, 태국 학생들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소개하며 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김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던 중, 학생들이 한국의 김밥을 일본의 스시와 혼동하여 "김밥은 스시 아니냐"며 질문한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고, 김밥과 스시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주어야 했습니다.

김밥과 스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료와 조리법입니다. 김밥은 밥을 주재료로 하여 채소, 계란,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김으로 감싼 음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자 식사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반면, 스시는 초밥을 기본으로 하여 생선이나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또한, 스시는 초밥을 주로 사용하지만, 김밥은 발효된 재료와 조리된 재료들이 어우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김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음식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밥은 한국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서, 그 정서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실습 활동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의 재료와 이를 읽는 방법,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학습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별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과정임을 실감하며, 향후 수업에서도 더 많은 문화적 콘텐츠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 전통, 사회적 가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접목시키며, 한국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한국어학부 신채리 학생)

제가 학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수업에서는 문법 설명을 어떻게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내용 중 하나는, 문법을 어려운 이론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메모하면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바로 실천 가능한 방식들을 구상하고 교수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교수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실제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에서는 "세상에 완벽한 교재란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교재 선택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는데 특히 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교재를 비교하고, 각 교재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원하는 교재를 직접 만들 수 없겠지만,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는 태국에서 파견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언어 학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단지 언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매력도 함께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으로서 제 목표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전달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교류와 소통을 중요시하며, 교사로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성장하고,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학생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INTERVIEW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한국어학부 신채리 학생)

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목표로는 2025년에는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실습을 마무리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여 제가 가르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함과 동시에 상호 문화적인 관점으로 한국의 문화와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외 다국적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교수법'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태국에서의 파견 생활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동안 쌓아온 문화적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캐릭터 '싸부'의 탄생



1. 캐릭터 컨셉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혜로운 부엉이 싸부!!

사외대인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아늑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하며 편안함과 지혜를 나누는 마스코트입니다.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습과 성장을 사랑하는 싸부는 사외대인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응원과 위로를 건네지요. 한편, 귀엽고 영리한 모습 속에 숨겨진 아기자기한 매력 덕분에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합니다.

2. 싸부 스토리

지혜의 숲 어딘가에는 작은 둥지에서 살고 있는 귀엽고 푹푹한 부엉이 싸부가 있었습니다.

싸부는 혼자이지만, 주변 모든 생물들과 친구가 되어 숲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특히 싸부는 자신이 지혜와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숲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 싸부는 어느 아침, 맑은 하늘 아래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때가 되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싸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싸부는 자신의 똑똑한 눈으로 세상을 더 알아가고, 숲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에서 지혜와 편안함을 전하고 싶어졌지요.

마침내 싸부는 사이버한국외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편안함을 나눠주며, 마치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는 것처럼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싸부는 오늘도 사이버한국외대의 학생들에게 귀엽고 똑똑한 친구가 되어주며, 자신이 가진 지혜와 따뜻함을 전하는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캐릭터 '싸부'의 탄생



3. 싸부의 다양한 모습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캐릭터 '싸부'의 탄생



4. 그럼 싸부는 어디에 쓰일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 연극 <불편한 편의점> 단체관람
일시 : 2025. 5. 24. (토) 19:00 장소 : 대학로 을웨이즈씨어터

**한국외대생을 위한
사이버한국외대 여름 계절학기 학점교류 안내**

- 신청기간: 5. 27.(화) ~ 6. 3.(화)
- 신청방법: 사이버한국외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개강일(6/23) 전체 주차 강의 오픈! [이번 학기 첫 시행]



글로벌 문화 과목

-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 일본 문화의 이해
- 아시아 문화 여행
- 세계문학사

민기 과목

- 현대인을 위한 뉴스 바로보기
- AI나문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킴
- 영화로 공부하는 사죄와 정부
- 글로벌 비즈니스 메티켓

산업안전기사도 건설안전기사도
소방안전관리자도 OK
실용 외국어로 해외진출까지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신·현직생모집 2. 3(화) ~ 2. 17(목)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주택관리사까지 한번에!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신·현직생모집 2. 3(화) ~ 2. 17(목)

커뮤니케이션 의 이해

02 주차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CLIP1. 커뮤니케이션이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 수강 관련 FAQ



동영상 느리고 끊겨요

인터넷 속도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화질 보기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브라우저의 플러그인 또는 보안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면서 지연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풀었는데 안풀었다고 나와요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퀴즈의 경우 퀴즈 [다시풀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퀴즈를 풀고 정답을 확인 한 후 [다시풀기]를 누르고 퀴즈를 다시 풀지 않고 페이지를 빠져나오는 경우 퀴즈가 미완료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불안한 경우 퀴즈를 다시 풀면 해결됩니다.



출석현황에서 미결은 뭐고 미완료는 뭔가요?

미결은 출석과 관련된 동영상 수업을 빠뜨린 경우 미결이 됩니다.

미완료는 출석과 관련 없는 퀴즈, 설문, 단순 텍스트 자료 등의 학습 요소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가 표시됩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 수강 관련 FAQ



자막이 안 나와요

자막 기능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는 과목이 있고 자막이 없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자막 제공 교과목 수는 꾸준히 늘려 나가는 중입니다.



과제를 제출 했는데 제출한 내용이 확인이 안되요

문제풀이형 과제의 경우 담당 교수/튜터가 성적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정답 여부 및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과제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배속으로 들어도 출석에 문제가 없나요?

강의를 빠른 배속기능을 활용하여 들어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동영상 전체 분량 중 어디까지 시청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의 영상을 다운받고 싶어요

저작권 문제 등으로 강의 영상을 다운 받는 것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 수강 관련 FAQ



녹음 기능이 안돼요

녹음 기능은 녹음이 가능한 장치(마이크, 헤드셋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마이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반드시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브라우저의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마이크 메뉴에서 '사이트에서 마이크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음'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 허용이 안된 페이지

클릭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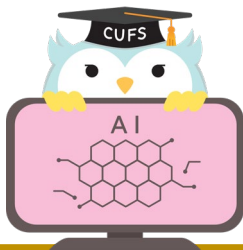




1.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News 업데이트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cufs.ac.kr>)에서는 다양한 e-Learning News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수 및 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AI 튜터 & AI 챗봇 서비스 도입



지난 3월 우리 대학은 AI 튜터와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1) AI 튜터

AI 튜터 서비스란 인공지능이 과목별 학습 자료(교안, 강의 자막, 수업 계획서, 참고 문헌 등)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챗봇 서비스로, 수강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고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AI 튜터 서비스입니다.

AI 튜터 접속 경로 및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campus 접속] → [학사공통] → [학습현황조회] → [AI 튜터 버튼 클릭]





2) AI 챗봇

AI 챗봇이란 학사 일정, 입학 절차, 등록, 수업 관련 문의 등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답변을 제공하는 AI 챗봇입니다.

AI 챗봇 접속 경로 및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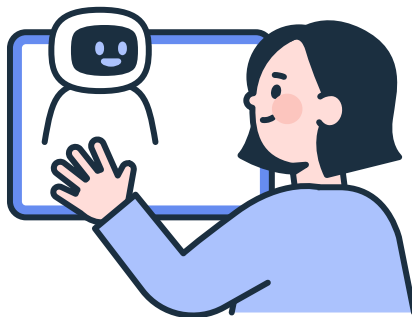
[홈페이지 로그인] → [campus 접속] → [Quick Link] → [AI 학사 Chatbot]
→ [AI 학사 Chatbot 이동 버튼 클릭]

이러한 AI 튜터 및 챗봇 서비스를 통해 수업 및 학사 관련 궁금했던 점을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변 받아보세요. 단, 인공지능 특성상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민감한 개인 정보나 사적인 내용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튜터 및 챗봇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교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 탭 클릭 → 좌측 [AI 튜터 안내] 탭 클릭

* 경로: <https://www.cufs.ac.kr/page/view.do?pagelId=PAGE000314&menuId=MENU0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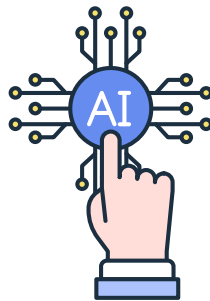




3. 2025학년도 신입 교원 대상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CUFS OST) 실시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신입 교원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수업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저작도구 활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전반적인 안내부터 미니강의 제작까지 참여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2025 신입 교원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CUFS OST) 현장 스케치





4. '2025 Media Day' 교수자 특강 실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본교 교수를 위해 지난 2025년 5월 29일에 'Media Day'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AI 시대, 생각을 깨우는 교수법: 기술철학의 시선' 이라는 주제로, AI 시대의 교육이 인간 고유의 창조적 사고와 비판적 행위를 중심으로,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행동하는 지성인'을 양성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오프라인 및 화상 특강 실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주말 오프라인 및 화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cufs.ac.kr>) 및 TESOL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cufs.ac.kr>)의 공지사항에 이에 대한 안내가 게시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교수님 및 학우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과 학습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튜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